

한국 교회와 성도, 위선을 버려야 산다(47)

성경말씀: 눅12:1-12

공생에 마지막 부분,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 손을 씻지 않음, 겉과 속 둘 다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먼저 속이 깨끗해야 한다. 종교인들은 그 반대다. 6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정죄하심(마23). 바리새인들: 채소의 십일조, 판단의 공의 및 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율법사들: 과도한 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음, 지식의 열쇠를 빼앗음.

우리 교회의 사역: 열쇠를 돌려주는 것

신약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틀, 사고방식, 습관 버려야 산다. 킹제임스 성경

종교인들의 문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당황함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정죄, 기회를 엿봄(11:53-54),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매우 확실하게 지적함(1): 제자들,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살려면 위선을 버려라. <한국 교회와 성도, 위선을 버려야 산다>, 쓸데없는 종교 행위의 밑바닥에는 위선이 있다.

위선(Hypocrisy)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선 척결, 위선(총 6회): 구약 1회(사32:6), 복음서 3회(마23:28; 막12:15; 눅12:1), 바울(딤후4:2), 야고보(약3:17)

위선자(복수 20회, 구약 3회, 신약 17회 모두 예수님), (단수10회, 구약7회, 신약 3회 예수님)

그러므로 위선과 위선자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뜻: 숨기다, 덮다(2-3), 전12:14, 잠15:3,

배우 노릇하다, 실제 배우는 울어야 하는데도 연극을 위해 웃어야 함

막7:6-7,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성경을 오히려 파괴함

네이버 사전: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원래 그 자체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것은 위선이다”[『기독교의 정신』 1. 331].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은 것을 감히 진실하다고 공표하는 거짓”[『정신현상학』 3. 463f.]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선 척결

사32장 천년왕국, 5-8절, 위선이 없어지는 때, 비열한 자가 없어지는 때

위선의 예

늪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2016년 4월 22일(금), 브레이크 뉴스

저자: 이법철 시인 승려, 킬럼니스트

절에 사는 늪은 고양이, 쥐를 잡기 어렵다. 묘수: 어떻게 먹고살지 노승을 연구함. “노승이 가사를 입고 눈을 지그시 아래로 뜨고 근엄하게 좌선자세로 앉아 명상에 잠긴 듯 하면 남녀신도들이 공손히 절하고 공양물을 바친다” 그래서 이 늪은 고양이도 가사를 걸치고 노승처럼 좌선자세로 앉아 눈을 지긋이 아래로 뜨고 명상에 잠긴 듯 근엄하게 앉아 보았다. 그랬더니 쥐들이 몰려옴. 마지막 쥐 사냥, 사술(위선)이 오래가지 못함, 나중에는 들통 나서 쥐떼들의 반격으로 고양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

늪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낭독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종교요, 종교의 위선이다. 어디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을 가장 미워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위선과 가식 배척, 목사의 편지

위선의 원인(4-7)

위선은 포장하는 것, 포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4)

특히 사람과 이 세상 삶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매이면 사람이 위선자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명품이 그래서 유행, 청년들이 유럽 차

위선을 피하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5).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잠언과 성경 전체의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의 참새도 다 기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6).

마10:29, 참새 두 마리 일 아사리온, 여기는 5마리 2아사리온, 보잘 것 없는 것은 텀으로 준다.

그런데 그 보잘 것 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신다.

욥의 교만, 하나님의 대답(욥38:39-41, 39:1-2, 13, 19, 27-30)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히13:5-6).

그러므로 위선을 행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라(눅11:39).

머리털(7) 수(평균 10만 개), 나고 떨어지는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

성도도 걸린다

갈2:11-14, 베드로와 심지어 바나바도 위선에 넘어가서 바울의 책망을 받음

예: 0. 억지로 구원, 억지로 예배, 억지로 헌금 하는 척

1. “우리 이것하면 어때요?” “기도해 보고 알려드릴 게요” “하나님의 뜻” 운운

2. 교회만 오면 성경 이야기(가정생활, 사회생활 빵점)

3. 목사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언행이 바뀜

4.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음(그런데 시간, 물질, 섬김의 희생이 오면 슬그머니 피함).

즉 바른 것을 시인해야 할 때, 시행해야 할 때 부인(8-9)

플링: “일반 교회와 무엇이 달라?” 속마음은 하기 싫은데 이유는 달리 나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무도 채근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 변명 No!

다른 교회로 가는 것 자유: 가서는 위선이 나온다. 다른 이유가 나온다.

어떤 분의 말: 교회에서 나간 형제, 공공연히 킹제임스 성경 부인, 그러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닌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실은 많은데. 그것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목사의 헌금 남용이 가나안 신자를 만든다.

위선은 전염병이다: 누룩

누룩, 퍼진다. 고전6:6-8

그래서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전체가 뜬다.

그래서 교제 모임을 통해 자기의 위선을 인식하고 잘라내야 한다.

교제가 안 되면 성장 멈춤, 문제 생김

요즘 목요 자매 모임

결론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석 척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오가 확실해야 한다(고후1:17-18).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실 것, 우리의 일을 알아주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한다.

킵바이블: 복음의 원수는 누구인가? 김재욱

늙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현시대 불교계에 가사 입은 늙은 고양이같이 먹고살기 위해 사기술을 상습으로 펼치는 ‘가사 입은 승려들은 전무할까? 아니다. 나는 일부 가사 입은 승려들에 대해 의혹과 의구심을 갖은 지 오래라고 감히 주장한다.

“일부 가사 입은 승려들은 간판에 사암(寺庵)의 간판을 붙이고 불상을 봉안해 놓았지만, 속내는 선량한 신도를 유혹하고 믿게 하려는 위선이 있고, 속내는 오직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실력 없는 점술가 노릇을 한다. 명리학의 깊은 이치를 모르면서 부처님을 내세워 황당한 예언을 하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피화구복(避禍求福)의 부적과 지옥고를 면하고 극락행 티켓을 특별히 주듯 하며 돈을 받아낸다. 또 인간이 운수가 안 좋고, 재수가 없는 원인은 죽은 조상이 천도(遷度)를 간절히 원하는 데(즉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를 드리주기 원하는데, 연옥 개념) 안 해주는 탓에 현세의 부귀를 얻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1천만원이나 5백만원을 내고 조상 천도를 하면 반드시 소망하는 부귀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봐, 천만 원을 내어 천도를 하면 몇 십억 몇 백억을 벌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어리석은 중생아!”

“서울에서 예언으로 명망을 떨치며 갈퀴로 돈을 낙엽 굵듯 한다는 모 사찰의 모 고승은 지옥과 극락을 수시로 오가고,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서 고통 받는 귀신을 구해 극락행을 보장해주는 신통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주장한다. 그는 선전하기를 하루에 1인당 10만원씩 7명만 운명 감정을 해주고 참선삼매에 들어서 버린다고 한다. 10만원씩 운명 감정을 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복을 구하러 오면(문복자(問卜者)), 특별히 귀신 천도를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가사를 입은 고양이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사를 입은 승려 가운데 더 악질 배는 돈을 탐착하여 부처님을 내세우고 선량한 신도들에게 사기 치는 것보다 더 간악한 고수가 또 있다. 돈이 혈안이 되어 불상 뺏속을 뒤지고, 문화재의 불상과 탱화를 팔아먹는 짓을 한다.”

“작금에는 한국불교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위시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무고의 욕설을 퍼붓고 북한에서 모든 종교를 말살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좌익 승려들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이 자들 역시 가사 입은 도적들이 아닌가?”

“내가 관찰하여 얻은 결론은 한국 불교는 망해가도 승려들 자체의 정화로서는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가사 입은 도적들이 고위층 정관계에 뇌물을 뿌리며 동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나는 선량한 고양이를 무고하고 모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사를 입은 고양이 얘기로 일부 돈을 위해 도적질하는 자들과 김일성에 혈안이 된 승려들을 대오각성 시키려는 의도뿐이다. 고양이 애호가들이 내게 고발, 진정이 없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중생들에게 가사입고 사기 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